| 국어는 이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파이널Ⅱ 제7차 예비평가 정답과 해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Ⅱ 제7차 예비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 형

공통과목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③	2	18	②	2	35	④	2	35	④	2
2	③	3	19	④	2	36	③	2	36	③	2
3	①	2	20	⑤	2	37	④	2	37	⑤	2
4	①	2	21	④	2	38	③	2	38	①	2
5	②	2	22	③	2	39	④	3	39	③	3
6	⑤	2	23	⑤	3	40	⑤	2	40	③	2
7	①	2	24	⑤	2	41	①	2	41	④	2
8	②	3	25	③	2	42	①	2	42	①	2
9	②	2	26	②	3	43	①	2	43	③	3
10	④	2	27	④	2	44	②	3	44	①	2
11	⑤	2	28	⑤	2	45	④	2	45	②	2
12	①	3	29	②	2						
13	④	2	30	③	3						
14	③	2	31	①	2						
15	①	2	32	④	2						
16	⑤	2	33	③	2						
17	⑤	3	34	③	3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Ⅱ 제7차 예비평가 해설

• 공통과목 •

[1～3] 독서론

1. [출제의도] 두 가지 읽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인터넷 시대의 읽기가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거르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비판, 쓰기가 동시적으로 진행될 뿐이다.

[오답풀이] ① 전통적 읽기는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읽는 것이라서 상상하는 과정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기도 한다. ② 텍스트와 동영상, 음향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읽기이므로, 인터넷 시대의 읽기는 동영상이나 음향도 참고한다. ④ 인터넷 시대의 읽기는 텍스트 읽기와 비판적 사유, 쓰기가 거의 동시적으로 진행된다. ⑤ 인터넷 시대의 읽기를 따르는 독자는 기존 지식에 의존하기보다 새로운 정보들을 직접 찾아 나서며 이를 활용하는 데 비해, 전통적 읽기를 따르는 독자는 자신의 지식을 동원한다. 자신이 지니고 있던 지식에 의존할 여지가 더 많은 것이다.

2. [출제의도] 지문에서 드러난 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독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정보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답풀이] [A]에는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읽기 과정에서 눈에 들어오는 다른 정보들에 빠져 목표를 잃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읽기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 목표에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를 판단하면서 읽는 훈련을 한다면 그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읽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책의 선정과 읽기 과정을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한다고 하여 정보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인터넷 시대의 읽기를 할 때에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을 찾아 교육해야 한다. 인터넷을 피하고 책을 참고하라는 것은 그 해결 방법이라 할 수 없다. ④ 인터넷에 있는 정보의 특성상 한 화면의 내용을 다 읽으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검색을 활용하기보다 집중하라는 것도 적절한 해결 방안이라 보기 힘들다. ⑤ 정보를 찾아 읽을 때 일단 주어진 내용을 다 이해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출제의도] 학생의 반응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은 읽기 방법이 달라졌다는 점에 놀랐다. 그리고 지문을 읽으면서 인터넷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읽기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졌고, 이를 알기 위해 자료를 찾아 읽으려 하고 있다. 아울러 그렇게 알게 된 읽기 방법을 실천해 보려는 마음을 먹고 있다. 즉 읽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읽기와 그 실천에 대해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학생은 새로운 시각에 놀랐지만 이를 통해 그간 부족했던 독서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 ③ 학생의 반응에서 독자의 모범적인 태도에 대한 발견을 확인할 수 없고,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인할 수 없다. ④ 학생은 능동적인 읽기가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⑤ 학생의 반응에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인터넷에서의 읽기를 수행했다는 경험이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음을 확인할 수는 없다.

[4～9] 인문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65쪽, 수능완성 8쪽

4. [출제의도] 두 지문의 서술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전통적 사회 계약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즉 자연 상태와 합리적 개인을 가정했을 때 계약의 성립과 준수를 설명하기 힘든 한계에 대한 롤스의 극복 시도를 다루고 있다. (나)는 롤스의 사회 계약설조차 사회 계약의 준수에 대해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고 보고, 이에 관한 스컴스의 극복 시도를 소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는 전통적 사회 계약설과 롤스의 사회 계약설을 순차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이론의 변천 과정을 시대순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나) 역시 이론의 변천 과정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③ (가)와 (나) 모두 기존 이론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고 있으나, 그 등장 배경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④ 차등의 원칙을 설명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제시한 것은 (가)이다. (나)에는 게임 이론의 모델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모델을 설명하는 것을 사례 제시라 할 수는 없다. ⑤ (나)는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다루고 있지 않다.

5.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롤스의 사회 계약설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입장은 롤스의 논리가 순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개인들의 정의감으로 인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의감은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유래한다고 설명한다는 것이다. 만일 '질서 정연한 사회'가 실제로 도래한 상황이라면 롤스의 한계를 지적하는 입장도 사회 계약의 준수가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오답풀이] ① 전통적 사회 계약설에 따르면 사회 계약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③ 스컴스는 모방에 의해 전략이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웃에서 벌인 성공적인 전략을 모방한다는 것이다. 이때 게임 참여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선택의 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웃의 전략을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방할 수 있는 것이다. ④ 스컴스는 개인들이 합리적이되, 나의 선택이 나를 향하는 다른 이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까지도 고려하여 선택한다고 보았다. ⑤ 스컴스는 협력을 택한 이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사회 계약의 준수가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6.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특정 원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이라면 경제적 불평등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상위 계층이 최소 수혜자보다 양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고 해도 가장 불리한 계층의 처지가 개선된다면 그러한 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인 것이다.

[오답풀이] ① 차등의 원칙은 경제적 불평등이 용인되는 상황을 규정하는 원칙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인 것이 아니다. ② 롤스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무지의 장막'을 가정했을 때 차등의 원칙에 동의할 것이다. 차등의 원칙 자체가 '무지의 장막'의 작동을 가정하는 원칙인 것은 아니다. ③ 누구나 차별 없이 참여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차등의 원칙이 아니라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④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가 가져가는 이익이 가장 큰 정책을 택하는 원칙이 아니다. 지문에서 제시된 이익 분배의 사례에서처럼 최소 수혜자가 가져가는 이익보다 상위 계층이 가져가는 이익이 더 많더라도, 최소 수혜자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주는 정책을 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7. [출제의도] 지문의 두 학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롤스나 스컴스가 사회 계약이 체결된 후에, 즉 국가가 발생한 후에 그것이 안정적으로 준수되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사회 계약의 지속적인 준수가 어떤 이유에서 가능한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규명하려 하였다. 즉 사회 계약이 안정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이유를 밝히려 하고 있으므로, 사회 계약이 안정적으로 준수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오답풀이] ② 롤스와 스컴스는 모두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만 고려하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 롤스는 개인들이 합리적인 존재이지만 무지의 장막 상황에서 타인의 처지를 고려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스컴스가 활용하는 게임 이론의 경우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스컴스의 설명을 보면 개인들이 협력을 택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한 선택이다. ③ 스컴스의 설명에 따르면 반복되는 게임의 상황 등을 가정할 때 배신을 택하지 않고 협력하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이때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다줄지의 계약 결과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롤스는 사회 계약을 설명할 때 '무지의 장막'을 가정한다. 계약의 결과, 즉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히려 사회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④ 게임의 상황을 도입한 것은 스컴스이다. 롤스는 게임의 상황으로 설명하지 않고도 사회 계약이 체결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⑤ 롤스가 자연 상태를 특정 게임의 상황으로 볼 이유는 없다. 스컴스 역시 자연 상태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 상황과 유사한 것이 아니라 '사슴 사냥' 게임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8.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 보인 반응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에는 관습으로 사회 계약을 설명하는 견해가 소개되어 있다. 이는 반복되는 게임을 가정한 스컴스의 견해와 유사한 면이 많다. ㉯에는 결과적으로 '사슴 사냥' 게임과 거의 유사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협력을 하면 가장 많은 이익을 얻지만 상대가 배신할 때 협력하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정답풀이] ㉮에는 상대의 선택을 보고 나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이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사슴 사냥' 게임에 적용해 보더라도 최상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균형이 두 개이며, 상대가 배신할 때에는 나도 배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 다 협력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조건을 '사슴 사냥' 게임의 상황에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협력의 균형'과 '배신의 균형' 둘 모두가 균형이다.

[오답풀이] ① ㉮에서 제시된, 장이 열리는 요일이 관습으로 굳어진 상황처럼, 관습이 존재하는 사회라면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할 때 관습을 따르는 것이 이익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할 때 사회 계약의 준수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데, 관습을 통해 준수될 수 있음을 보인다면 굳이 개인의 정의감이나 '질서 정연한 사회'를 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③ ㉮에 제시된 사례는 장이 특정 요일에 열리는 것이 반복되면서 관습으로 굳어진 상황이다. 이와 같은 관습이 있을 때 계약이 합의되기 쉽다. 이는 스컴스가 설명한 균형의 이동과 유사하다. ④ 게임이 반복될 때 게임 참여자들이 협력을 택하는 것은 그럴 때 자신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온다는 점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즉 반복되는 상황을 통해 협력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 입장도 개인이 합리적인 존재라는 가정을 인정할 것이다. ⑤ 노 젓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스컴스에 따르면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를 때 '갑'과 '을'은 배신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둘 다 배신하는 것도 하나의 균형인데, '죄수의 달레마' 게임 상황에서도 둘 다 배신하는 것이 균형이다.

9. **[출제의도] 한자어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하여 고유어로 적절하게 바꿔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용인된다는(용인되다)'은 '용납되어 인정되다.'라는 뜻이므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두드러지게 커지거나 갑자기 생겨나다.'라는 뜻인 ②의 '불거진다는(불거지다)'으로 바꿔 쓸 수 없다.

[10～13] 사회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53쪽, 156쪽**

10.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5개월 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 때에나, 국회에서 요구하여 수정안을 만들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오답풀이] ① 소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이므로, 선거구 수만큼 국회 의원이 선출된다. ②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 의장에게 제출할 뿐이며, 그 가결은 국회에서 이루어진다. ③ 국회 의원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가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획정안이 국회 의장에게 제출되는 것이다. ⑤ 교통이 불편한 생활 권역을 합쳐 선거구를 획정하면 각 행정 구역의 생활 권역의 독자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소수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가 어려워진다.

11.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두 개념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1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큰 과대 대표와 상대적으로 작은 과소 대표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 대표성(㉠)을 강화한다. 따라서 인구 대표성을 강화하면, 과대 대표의 문제가 줄어든다.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면 인구가 작은 지역도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될 수 있으므로 과소 대표가 아닌 과대 대표의 문제가 발생한다.

[오답풀이] ① 인구 대표성을 강화하면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인구가 적은 여러 행정 구역을 합쳐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여러 행정 구역을 합친 거대 선거구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 ②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지역 대표성이 약화된다. 따라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수 외에 행정 구역의 면적을 선거구 획정의 기준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③ 선거구 획정의 기준은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마다 인구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되어 왔다.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를 줄이면 과소 대표와 과대 대표의 문제가 덜 발생하므로 인구 대표성이 강화되지만, 경계 조정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④ 헌법의 평등 선거의 원칙은 1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구 대표성을 강화해야 과소 대표와 과대 대표의 문제를 줄여 평등 선거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다.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면 과대 대표의 문제가 발생하여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행정 구역 A～D의 경계를 자유롭게 조정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전체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가 18만 명이므로, '평균 인구수 기준'을 적용하느냐, 이를 외면하고 인구 비율만 적용하느냐에 따라 각 선거구의 인구수가 달라질 수 있다.

[정답풀이] '평균 인구수 기준'을 고려하여 2:1의 인구 비율을 맞추면 최소 12만 명, 최대 24만 명의 선거구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평균 인구수 기준'을 외면하고 2:1의 인구 비율만 적용하면, 12만 명이 넘는 최소 선거구가 만들어질 경우에 24만 명이 넘는 선거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가령 A에서 13만 명의 선거구가 만들어지면 그것의 2배인 26만 명의 선거구가 발생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A에서 동일한 인구수로 8개의 선거구를 만들면 A의 각 선거구의 인구수는 18만 명이다. 또 B와 C를 합친 선거구와 D만으로 이루어진 선거구는 인구수가 각각 12만 명, 24만 명이다. 이렇게 획정된 10개의 선거구는 평균 인구수가 18만 명이고, 최소 선거구가 12만 명, 최대 선거구가 24만 명이므로 '평균 인구수 기준'을 충족한다.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로 평균 인구수의 33.33 %를 넘지 않으므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의 인구 비율이 2:1을 넘지 않는 것이다. ③ 26만 명의 선거구를 획정하면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2:1의 인구 비율을 넘어서는 선거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선거구는 인구수가 지나치게 많아 1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은 과소 대표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평균 인구수 기준'에 따르면 평균 인구수가 18만 명일 때 최대 선거구의 인구수가 24만 명 이내여야 하므로 이 선거구는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행정 구역의 면적을 일정 범위 이내로 하는 것을 인구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럴 때 A는 인구가 많으니 몇 개로 쪼개어질 가능성이 높다. C는 하나의 행정 구역이므로 인구가 적지만 면적 기준에만 충족되면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될 수 있을 것이다. ⑤ 경계 조정은 읍·면·동을 최소 단위로 하여 시·군·구의 경계를 넘어 합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다. C와 D의 경계를 넘어 경계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C와 D는 그 이하 읍·면·동 단위에서 쪼개져 경계를 넘어 합쳐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C와 D는 읍·면·동이 아니라 시·군·구에 해당할 것이다.

13.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상 의미와 가장 비슷하게 쓰인 단어를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하는데(하다)'는 문맥을 고려할 때 '이름을 지어 부르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꿀을 얻기 위해 벌을 치는 것을 양봉이라고 한다.'에서 쓰인 '하다'와 의미가 유사하다.

[14～17] 과학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195쪽**

14. **[출제의도] 지문에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은 바이러스가 유전 물질인 DNA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체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을 뿐, 바이러스가 DNA를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슈뢰딩거는 물질이 농도를 거슬러 이동함에 따라 무질서의 정도인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을 생명 현상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② 바이러스는 미생물로 분류되지만 생명체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세균의 ABC 수송 단백이 이동시키는 물질들에는 아미노산과 같은 영양분이나 물질 대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이 포함된다. ⑤ 당 분자가 세균의 ABC 수송 단백을 통해 세균 내부로 이동할 수 없는 이유는 MD의 두 막대가 만드는 틈이 당 분자가 통과하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이다.

15.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에서 일어나는 능동 수송은 생명체와 무생물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하지만 유전 물질인 D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생명체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유전 물질의 존재 유무는 생명체와 무생물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오답풀이] ② 세균의 능동 수송 과정에서 ATP가 ADP와 인산으로 분해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MD에 전달된다. 이 에너지는 MD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데에 사용되어 틈을 만들고, 그 틈으로 물질이 이동한다. ③ 물질이 농도를 거슬러 이동하는 상황은 무질서의 정도인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④ ABC 수송 단백은 그 종류에 따라 이동시킬 수 있는 물질이 각기 다르다. ⑤ 인산과 같은 작용기는 더 큰 분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작은 분자로, 자신을 포함하는 분자에 특정 성질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16. [출제의도] 지문에 나온 대상들에 대해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세균에서 작용기 전달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 1은 PEP로부터 인산을 분리하여 열안정성 단백질인 HPr에 결합시킨다. 그리고 효소 2는 인산-HPr 결합체로부터 인산을 분리하여 자신이 인산과 결합함으로써 인산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이 에너지를 통하여 세포 외부의 당 분자를 내부로 이동시킨다.

[오답풀이] ① 효소 2는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인산과 결합함으로써 인산으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는다. 하지만 효소 1은 인산을 PEP로부터 분리하여 HPr에 결합시키는 작용만 할 뿐, 인산으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지는 않는다. ② 효소 2는 당 분자를 세균 내부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세포 내부에 있던 PEP로부터 분리된 인산을 당 분자와 결합시킨다. 따라서 효소 2가 당 분자를 세균 외부에 있던 인산과 결합시킨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효소 1은 세균이 외부의 당 분자를 인식하는 순간 작동한다. 즉 외부의 당 분자를 인식하면 PEP로부터 인산을 분리하여 HPr과 결합시킴으로써 인산-HPr 결합체를 형성한다. 하지만 효소 2는 세균이 외부의 당 분자를 인식하는 순간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산-HPr 결합체가 자신이 있는 쪽으로 이동할 때 작동한다. ④ 효소 1은 PEP로부터 분리한 인산을 HPr과 결합시킬 뿐 인산을 세균 외부로 이동시키지는 않는다. 효소 2 역시 인산을 세균 외부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포 외부에서 세포 내부로 이동하는 당 분자와 결합시킬 뿐이다.

17.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인간의 소장 표면의 상피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는 데 관여하는 수송 단백질인 나트륨-칼륨 펌프와 포도당 수송 단백이 소개되어 있다. 나트륨-칼륨 펌프가 담당하는 1차 능동 수송과 포도당 수송 단백이 담당하는 2차 능동 수송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이를 지문에 소개된 세균의 능동 수송, 그리고 작용기 전달 반응과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풀이] 포도당 수송 단백을 통한 나트륨 양이온의 이동은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의 방식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확산은 ABC 수송 단백을 통해 아미노산이 이동하는 방식인 능동 수송과 달리 무생물에서도 관찰되는 방식이므로, 생명체만이 지닌 특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나트륨-칼륨 펌프는 하나의 ATP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마다 나트륨 양이온 세 개와 칼륨 양이온 두 개를 이동시킨다. 하지만 ABC 수송 단백은 물질 한 분자를 이동시키기 위해 두 개의 ATP를 사용한다. 따라서 나트륨-칼륨 펌프는 적은 ATP를 사용하여 더 많은 물질을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ABC 수송 단백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나트륨-칼륨 펌프는 소장 내강의 포도당을 상피 세포 내부로 이동시키는 데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세균의 작용기 전달 반응은 세균 외부의 포도당을 내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나트륨-칼륨 펌프를 통한 물질의 이동과 세균의 작용기 전달 반응 모두 생명 유지를 위한 영양분의 공급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③ 포도당 수송 단백은 포도당을 한 방향, 즉 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시킨다. 하지만 ABC 수송 단백은 그 종류에 따라 물질을 세균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시키는 것과 세균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구분된다. ④ 세균의 작용기 전달 반응을 통해 세균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포도당은 인산과 결합하는 인산화 과정을 겪는다. 하지만 포도당 수송 단백을 통해 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포도당은 별다른 변화를 겪지 않는다.

[18 ~ 23] 고전시가-현대소설 통합

➔ **연계 지문 : 작자 미상, 「영산가」 (수능특강 69쪽)**

➔ **작가 연계 : 채만식, 「태평천하」 (수능특강 263쪽)**

18.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표현상 특징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는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여 장면에 대한 상상을 펼치는 부분이 없지만, [B]에서는 '나와 같은 초로인생 한번 끔쩍 죽어지면'이라는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여 자신이 죽은 후 시신이 옮겨지고 묘지에 묻혀 있는 장면에 대한 상상을 '칠성포로 질끈 묶어 ~ 주야장천 누웠으니'라고 펼쳐 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의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양 산기를 자랑하고'와 '가는 새 오는 나비 춘기 춘흥을 조롱한다'가 대구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B]의 '무주공산 터를 닦아 청송으로 울을 삼고'와 '두견새로 벗을 삼아 주야장천 누웠으니'도 대구를 이루고 있고, '산은 요요'와 '물은 쾅쾅'도 대구를 이루고 있다. ③ [A]에서는 '붉은 꽃'과 '푸른 잎'의 색채 대비를 통해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B]에는 색채 대비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시각화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A]는 '꽃'과 '잎', '새'와 '나비' 같은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것들을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지는 않다. [B]에서도 자연물을 대화의 상대로 삼은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⑤ [B]의 '궂은비는 세우 섞어 함박으로 퍼붓는데'에 하강의 이미지가 나타나 있지만, [A]에서는 하강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없다.

19.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질끈'이라는 의태어와 '쾅쾅'이라는 의성어가 사용되었으나, 이 시구들이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노는 모습을 그린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③ '이 중에 절로 난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에는 인간이 늙는 것을 자연의 순리로 여겨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정서가 나타나는 반면, '나와 같은 초로인생 한번 끔쩍 죽어지면'에는 죽음을 생각하며 인생을 무상하다고 여기는 심정이 내포되어 있다.

20. [출제의도] 핵심 소재를 중심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화자는 '진시황'도 결국은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살아 있을 때 즐기자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나)의 서술자는 작품의 중심인물인 윤 직원이 영생 불사를 욕망한다는 점에서 '진시황'과 같음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의 화자는 '진시황' 같은 영웅들은 '사후 유명'하게 되지만 '초로인생'인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름을 남기지 못하면 후대의 평가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니, 화자는 '진시황'과 자신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③ (가)의 화자는 '진시황'이 아방궁에서 부귀를 누리면서 수천만 년이라도 살 것처럼 행동했지만 결국 속절없이 죽고 말았다고 했을 뿐, '진시황'이 누렸던 부귀에 대한 부러움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또한 (나)에서 윤 직원이 '진시황'의 부귀를 부러워했다는 진술은 찾아볼 수 없다.

21.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윤 직원은 소작료를 다 받으면서도 소작을 주는 것이 구제 사업이라고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분반할 난센스나 또는 농담으로 돌리겠지만, 윤 직원 영감 당자는 절대로 엄숙합니다.'라는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농담이 아니라 윤 직원의 소신이다. 실없는 농담으로 '좀 귀가 무딘 패'를 놀리려 하는 의도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천지의 공도'이고 '사실'이라는 진술에서, 윤 직원이 걸핏하면 말하는 '머, 내가 앞으로 오십 년을 더 살겠느냐 ~ 다직 한 십 년 더 살다가 죽을걸……'이라는 얘기가 이치에 맞는 것이라는 판단이 드러난다. ③ 구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윤 직원의 말을 듣고 '듣던 바와는 다르다고 탄복'했다는 진술에서, 윤 직원이 기부에 인색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객'이 이미 들었음이 드러난다. ⑤ '난센스나 또는 농담'으로 돌려 버릴 것이라는 진술에서, 소작료를 다 받으면서도 소작 주는 것이 구제 사업이라고 하는 윤 직원의 말이 상식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드러난다.

22. [출제의도] 중심인물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윤 직원이 흉년에 소작료를 받지 않는 것을 선행이라 여긴다는 진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소작을 주는 것 자체가 구제 사업이라고 여기는 그의 심사를 생각해 봐도, 윤 직원이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④ 해마다 '수수백 명을 구제'하고 있으니 따로 기부를 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② '작인덜한티다가 논을 주어서, 농사를 히여 먹구살게 허넝 게 구제 허구넌 큰 구제 아니오'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소작인들이 '제각기 서로 얻어 부치려고 청을 대'는 상황에서 윤 직원이 '김 서방이나 혹은 이 서방이나 또는 채 서방이나에게로 줄 수 있는 논을 최 서방 너를 준 것은 지주 된 내 뜻이니까, 더욱이나 내가 네게 적선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여긴다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작품에서 서술자가 윤 직원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만, '그러니 영감께서도……'는 구제 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청을 생략적 표현 속에 담아 드러낸 것일 뿐, 중심인물을 비판하는 말을 생략한 부분이 아니다.

[오답풀이] ②'만석의 부를 그대로 누리면서'라고 했다가 '아니, 자꾸자꾸 더 늘려 가면서'라고 정정한 것이나, '오래오래 백 살 이백 살'이라고 했다가 '백 살 이백 살이라니, 천 살 만 살'이라고 정정한 것, 그리고 또다시 '아니 천지가 무궁할 테니, 그 천지로 더불어 무궁토록'이라고 정정한 것에서, 구술에서나 있을 법한 군말 늘어놓기 또는 말 고치기라는 이 작품의 특징적 서술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③이 작품은 친일 악덕 지주인 윤 직원을 풍자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서술자는 이 인물을 '우리 윤 직원 영감'이라 친근하게 부르면서 그의 입장에 동조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의 심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 ④'걸핏하면'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머, 내가 앞으로 오십 년을 더 살겠느냐 ~ 다직 한 십 년 더 살다가 죽을걸……'이라는 윤 직원의 말을 인용한 것에서,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말을 곁에서 직접 들어 왔던 것처럼 진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4 ~ 26] 시나리오

➔ **연계 지문 : 장진 외, 「웰컴 투 동막골」(수능특강 23쪽)**

24. [출제의도] 시나리오의 장면 특성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S#89는 현철의 과거 기억에서 시작되는데, '현재의 현철'이 과거의 자신을 보며 괴로워할 때 현철 앞에 이연이 나타나 '모든 환영은 사라지고' 현철은 현재의 '평화로운 풀밭'으로 돌아온다. 이연의 등장과 함께 현철이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후 현철이 거칠게 숨을 쉬고 이연이 그런 현철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비가 그 주변을 날아다니는 장면이 나온 후 화면이 어두워지는 페이드아웃(F.O.) 효과로 S#89가 마무리된다. 따라서 장면 마지막에 나오는 페이드아웃이 현철이 과거에서 현재 상황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S#86은 '붉게 물든' 노을이 보이는 맑은 날씨이다. S#87 현철의 과거 장면에서는 비가 오고, S#88은 다시 S#86과 같은 맑은 날씨의 장면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S#89는 과거 장면에서 비가 오다가 과거 기억이 끝나면서 현재 장면의 맑은 날씨로 돌아온다. 이처럼 다르게 설정된 날씨가 교차되어 나타나면서, 과거와 현재 장면을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④S#87에서 현철은 한강 다리를 폭파하라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S#89의 전반부에서는 '섬광'과 '폭발'이 일어나고 '아비규환(=여러 사람이 비참한 지경에 빠져 울부짖는 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는 것으로 보아 현철이 결국 한강 다리 폭파 명령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S#88에서 현철이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온 후 S#89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현철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은 과거 한강 다리 폭파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25. [출제의도] 시나리오를 통해 적절한 영상화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S#94의 허수아비 길에서 현철은 조상들에게 기도를 올리는 촌장의 노모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울게 된다. 따라서 밤이지만 따듯한 색상의 조명 효과를 사용하여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어울리는 경건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오답풀이] ①S#86은 '넓은 풀밭'의 풍경과 그곳에 누운 현철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 장면에서 풍경의 아름다움을 보여 줄 때는 광활한 풀밭을 화면에 담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현철의 '평화로움'을 느끼는 표정이나 '서서히' '굳어'지는 표정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인물의 얼굴을 화면에 크게 담을 필요가 있다. ⑤S#86에 등장하는 '흰나비'는 배경이 되는 풀밭의 아름다움을 부각해 주는 자연물이다. 이 장면을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볼 여지는 없으므로, 이 나비들이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색상을 띠어서 공간의 신비스러움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S#94의 경우, '신비로운 음악'이 감도는 중에 '많은 나비들'이 주변을 돈다는 지시문의 표현에서 공간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느낌을 살리려는 의도를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장면 역시 비현실적인 공간이라 할 수는 없다.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S#87에서 무전을 주고받는 것은 한강 다리 폭파 현장에 있던 과거의 현철과 과거의 지휘관이다. 현철이 과거의 행위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현철이 과거의 지휘관과 소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S#87에서 현철의 과거 기억 장면이 시작되면서, 지시문을 통해 현철이 있는 곳으로 들어서는 '피난민들'을 '다큐멘터리 화면' 같은 흑백 영상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 장면이 한국 전쟁과 그로 인한 피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③S#89에서 현철은 한강 다리 폭파로 인한 '아비규환의 현장'에 직면하여, '자신의 손을 보며 동공이 풀린 채' 괴로워한다. 비록 지휘관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지만 스스로가 저지른 일의 결과로 펼쳐진 참상 앞에서 본인도 큰 심리적 상처를 입은 것이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비극적 역사 속에서 상처 입은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27 ~ 30] 현대시

➔ **연계 지문 : 강은교, 「일어서라 풀아」(수능특강 260쪽)**

➔ **작가 연계 : 김영랑, 「거문고」(수능특강 296쪽)**

27.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일어서라', '뿌려라', '빛나라'에서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가)에는 명령형 어조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⑤(가)와 (나) 모두에서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28. [출제의도] 시의 제목과 관련하여 시적 상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D]에서 화자는 '문'을 '굳게 닫고' 있다. 이는 [C]에 제시된 '바깥'의 암울한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처럼 화자가 부정적 현실로부터 자신을 차단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 현실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거문고를 연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화자가 수용하고자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D]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는, 거문고를 연주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에 대한 탄식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시의 제목이 '거문고'인 만큼, 울지 못하는 '기린'은 연주되지 못하는 거문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②'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손'이라는 구절에서 '퉁'은 거문고가 울리는 소리를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예전에 거문고가 연주된 적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땅 우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는 예전에 거문고를 타던 '노인'이 거문고를 잊었을까 염려하는 마음과, 노인이 거문고를 잊지 않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함께 내포한 구절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예전처럼 거문고가 마음껏 연주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비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9. [출제의도] 중심 소재의 속성을 고려하여 시구의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끈질긴 뿌리'와 '긁힌 얼굴'은 모두 풀의 질긴 생명력을 환기하는 표현으로서, ㉡은 대상의 생명력에 대한 독려를 드러내는 시구라 볼 수 있다. '긁힌 얼굴'을 대상의 연약함에 대한 걱정을 강조하는 시구로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오답풀이] ①㉠은 대상이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 최대한의 생명력을 발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시구라 볼 수 있다. ③㉢에서 화자는 대상에게 '목청'을 '천지'에 뿌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를 씨앗을 퍼뜨려 번식하는 풀의 생태와 결부하여 본다면, 이처럼 화자가 '목청'을 '천지'에 뿌리기를 독려하는 것은 사방으로 씨를 뿌려 그 생명이 번성하는 풀처럼 대상의 생명 활동이 왕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④세찬 비는 시련의 이미지를 담고 있지만, '풀'은 수분을 흡수하여 생명 활동을 영위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이 세상 숨소리'가 '빗물로 쏟아지면' 그 '빗물 마시'라는 것은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역경들을 오히려 힘으로 삼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⑤화자는 '죽은 듯 엎드려/실눈 뜨고 있는' 대상들에게 '빛나라'라고 요청한다. 죽은 듯 보이지만 죽지 않은 대상들의 모습을 풀의 끈질긴 생명력과 결부해 보면, 이는 대상이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아 생명력을 발산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시구라 이해할 수 있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문'과 '벽'은 밖과는 차단된 방 안을 환기하는 시어로서, 이는 변절과 굴종을 강요하는 부정적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차단시킴으로써 내적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시인의 자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밤도 내 기린은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맘 놓고 울들 못한다'라는 구절을 볼 때, 시인이 이런 가운데서도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외면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인이 부정적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추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가)의 '기린'은 세상이 바로잡힐 전조로 출현한다는 신령스러운 동물이다. 이 '기린'이 울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이 바로잡힐 날(조국 광복의 날)이 요원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②<보기>를 참고하면 '이리 떼'는 일제의 폭압을,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 떼들'은 일제에 굴종하여 변절한 이들을 환기하는 시어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활개 치는 '바깥'은 식민지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보기>는 군부 독재의 현실 속에서 국가가 민중을 억누른 채 사회 전반을 통제했다고 설명하며, 시인은 민중의 변혁적 힘을 일깨우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전환의 계기를 환기하는 '바람'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환기하는 '꿈', 거대한 힘을 환기하는 '집채 파도'가 모두 '너희'와 관련되었다는 것은, 곧 민중에게 변혁적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1 ~ 34] 고전소설

➔ 연계 지문 : 김만중, 「구운몽」 (수능특강 309쪽)

31.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에 따르면, 춘운은 정 소저에게서 양 한림이 예전의 여관인지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지문을 보면, 춘운은 직접 양 한림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들에게 물어서 두 사람이 같은 인물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정 사도는 딸 정 소저가 양 한림이 예전의 여관인지 확인해 보고 있는 동안에 딸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양 한림에게 '내 사위가 됨이 어떠하뇨?'라며 청혼하고 있다. ⑤정 소저는 어머니에게서 자신과 양 한림 사이의 정혼 소식을 듣고는 '꺼림칙함이 있'어 이 '혼사를 맺'는 것이 마땅치 않다며 양 한림과의 혼인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꺼림칙함이 있'다는 것은 곧 양 한림이 여장을 한 채 자신을 만나 보고 간 '간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2. [출제의도] 특정 발화의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정 소저가 춘랑('랑'은 낭자라는 뜻으로 여자를 이르던 말.), 즉 춘운을 상대로 한 발화이다. 이 발화는, 여관이 연주한 '봉구황곡'이 사마상여가 탁문군을 꼬일 때 사용한 곡이라는 점을 계기로 하여 자신이 '여관'의 정체를 의심하게 되었으며, 여관의 정체가 남자이며 자신의 '춘색(여자의 아름다운 용모를 빗댄 표현이다.)'을 구경하려는 의도에서 변복을 하고 찾아왔으리라 추리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답풀이] ①[A]에 여관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여관이 거문고를 타면서 지은 표정에 대한 묘사는 없다. ⑤[A]에서 정 소저는 부모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을 춘운에게 털어놓고 있다. 그러므로 춘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여관을 탓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3.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양 한림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집과 정 소저의 집은 '문벌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고 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결혼인데, 만일 자신을 버리지 않고 사위로 삼아 주면 하늘 같은 은덕으로 여기겠다고 한다. 곧 정 소저의 집이 훨씬 상위 계층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 사도의 부인이 정혼 소식에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어 기뻐하는 마음을 품을 리가 없다. ㉢은 외동딸의 남편이 정해졌으니 이제 자신들이 늙더라도 의탁할 곳이 생겨 다행이라는 말이다.

[오답풀이] ②거문고를 타는 여관이 남자임을 간파했던 정 소저는 양 한림의 방문 소식을 듣고 그가 예전의 여관일 것이라며 춘운에게 확인해 보도록 한다. 춘운이 시비들에게 물어 보니 모든 시비가 양 한림이 예전의 여관과 얼굴이 같다고 한다. 이에 춘운은 '소저의 눈이 밝은 줄을', 즉 소저의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④㉣은 양 한림을 보고 '그 여관'을 다시 떠올리기는 하였지만 두 사람이 동일한 사람임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한 말이다. ㉣을 말한 뒤에도 부인은 양 한림과의 결혼에 꺼림칙함이 있다는 딸의 말을 듣고서 '너는 재상가 규중의 처녀요, 양 한림은 먼 회남 땅 사람이니 무슨 꺼릴 일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아직 양 한림이 예전의 그 여관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은 여관과 한림이 동일인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정 사도가 하는 말이다. 정 사도가 여관과 한림 둘을 굳이 구분하는 것은, 여장을 한 남자인 줄 모른 채 양 한림을 만났던 사실 때문에 딸이 양 한림에게 느끼는 거부감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고 짐작할 수 있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부인이 딸에게 규중처녀인 너와 먼 회남 땅 사람인 양 한림 사이에 무슨 꺼릴 일이 있느냐고 하는 것은 양 한림이 예전에 거문고를 연주하고 간 여관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기에 하는 말이다. 곧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다고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녀 간 교제에 대한 봉건적 윤리가 해이해져 가는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답풀이] ②남자인 양 한림이 여장을 하고서 정 소저를 만난 것은 남녀 간 교제를 금하는 봉건적 윤리관에 따르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런데 정 사도를 만나서는 정 소저의 '요조한 얼굴과 그윽한 재덕을 일찍이 들었'다고만 말하여 자신이 정 소저를 만나 본 일이 있음을 은폐하고 있다. 이는 곧 자신의 행동이 봉건적인 금기에 위배되는 것임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④양 한림을 두고 '간사한 사람'이라 칭하고 자신은 그의 꾀에 빠졌다며 분개하고 있으므로 정 소저는 봉건적 윤리관을 지키지 않은 양 한림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봉건적 윤리관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⑤정 사도는 양 한림이 자신의 딸을 먼저 만나 보고 간 사실을 전해 듣고서도 정 소저처럼 분개하지 않는다. 이는 봉건적 윤리관을 견지하기보다는 좋은 사윗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35 ~ 37] 화법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47쪽

35. [출제의도] 라디오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진행자는 '개성 있는 웹툰을 ~ 고민이시군요'라고 사연 내용을 요약하고, '웹툰 작가가 꿈이 ~ 사연을 선정했습니다.'라고 사연을 선정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36. [출제의도] 라디오 방송에 반영된 방송 진행 계획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진행자는 사회 심리학자 월러스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여 창의성을 발휘한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진행자는 '<네 꿈을 펼쳐 봐>'라고 방송 프로그램 제목을 언급하고, '수요일은 ~ 시간인데요'라고 해당 요일에 진행되는 방송 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②진행자는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중요한 4차 산업 시대'라고 현대 사회의 특성을 언급하고 이와 연결 지어 '창의성은 꼭 필요한 소양'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⑤'방송에 대한 감상은 청취자 게시판에 남겨 주세요.'라고 청취자가 소감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라디오 청취자의 듣기 반응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청취자는 책에서 읽은 정보를 언급한 후 '창의성 때문에 고민인 다른 분들도 알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방송에 소개된 이론의 타당성에 대해 점검하며 들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38 ~ 42] 화법 - 작문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31쪽

38. [출제의도] 회의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유나'가 회의 참여자의 모호한 발언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오늘은 우리 시의 ~ 의견 말해 줄래?'라는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너희 의견을 정리하면 ~ 소개할지 논의해 볼까?'라는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우리는 문화재 야행을 ~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아.'라는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그럼 다음 주 토요일 ~ 회의는 여기에서 마칠게.'라는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39. [출제의도] 회의의 특정 발화에 드러난 말하기 방식을 적절히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승재'는 전통주 축제를 소개하자는 '장우'의 제안에 대해, 예상 독자가 학생임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참여가 어려운 전통주 축제를 소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점 지적에 그칠 뿐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승재'는 우리 시에서 매년 주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는, 회의 참여자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를 환기하며 이 행사를 소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②'현서'는 '승재'가 소개하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자고 한 작은 음악회는 우리 시의 특색 있는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소개하기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③'장우'는 특색 있는 행사인지의 여부를 따졌던 '현서'의 발언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시의 특색 있는 행사로 전통주 축제를 제시하고 있다. ⑤'장우'는 문화재 야행을 소개하자는 '현서'의 발언을 듣고 '문화재 야행이라면 ~ 행사를 말하는 거지?'라고 하며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40. [출제의도] 회의에서 학생들이 나눈 발화에 나타난 상황과 그에 따른 표현 전략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 앞서 '장우'는 혼자 초고를 작성해야 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승재'를 위해 초고 작성을 같이 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처럼 '장우'가 자신을 도와주기로 한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승재'는 언어적 표현과 함께, 장우의 손을 꼭 붙잡는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회의의 작문 계획이 글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장우'가 말한 '문화재 야행의 세부 프로그램을 안내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B]에서는 세부 프로그램들을 진행 순서에 따라 소개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선생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초고의 마지막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히 구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선생님의 조언에 따르면 ○○ 문화재 야행의 특별함을 강조하고, 다른 지역 학생들에게 참여를 권유하며 마무리해야 한다. 따라서 '○○ 문화재 야행은 가을밤에 ~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이다.'라고 하여 ○○ 문화재 야행의 특별함을 강조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 ○○ 문화재 야행에 참여해 보자.'라고 참가를 권유한 ①이 적절하다.

[43 ~ 45] 작문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17쪽

43. [출제의도] 글에 사용된 글쓰기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의 목적은 총액 벌금제를 폐지하고 차등 벌금제를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에서 현행 제도인 총액 벌금제로 인한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차등 벌금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44. [출제의도] <보기>의 관점을 바탕으로 글을 비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 따르면 형벌의 평등은 책임주의를 따를 때에 달성될 수 있다. 범죄와 관련이 없는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범죄 행위 자체만을 기준으로 형벌의 정도를 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제력 등에 따라 형벌을 달리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위배되어 형벌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것이 된다.

45. [출제의도] 친구들의 조언을 반영하여 글을 고쳐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초고의 세 번째 문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추가된 것이 아니다. 세 번째 문장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A]에서 삭제한 것이다.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35 ~ 39] 언어

35.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10쪽

'그믐달'과 '아침잠'은 시간의 의미 관계가, '술잔'은 용도의 의미 관계가, '우물가'는 장소의 의미 관계가 있다. 이들 모두 된소리되기가 적용되는 합성어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귀리밥'은 재료의 의미 관계가, '논밭'은 병렬의 의미 관계가 있다. ③'물불'은 병렬의 의미 관계가, '물장난'은 수단의 의미 관계가 있다.

36. [출제의도] 'ㅅ'의 음운 변동 과정을 통해 사잇소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10쪽

사이시옷을 표기한 '아랫니'는 [랟]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랟]으로 소리 나고, [랟]은 비음화를 적용함으로써 [랜]으로 소리 난다고 설명 가능하다.

[오답풀이] ①, ④'뒷날'과 '툇마루'는 음절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②, ⑤'베갯잇'과 '훗일'은 음절 끝소리 규칙과 음운 첨가, 비음화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37. [출제의도] 안은문장에서 겹문장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80쪽

ⓔ에서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기'는 주어로 쓰이고 있다. 이 문장의 보어는 '취미가'이다.

[오답풀이] ② 안은문장에서 ⓑ는 체언 '불꽃들'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④ 안은문장에서 ⓓ는 서술어 '해라'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38. [출제의도] 접사가 어근에 결합하여 단어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58쪽

명사 '생각'은 접사 '-하다'와 결합하면서 그 품사가 동사로 바뀌었다. 부사 '반짝'은 접사 '-거리다'와 결합하면서 그 품사가 동사로 바뀌었다. 동사 '달리다'는 접사 '-기'와 결합하면서 그 품사가 명사로 바뀌었다.

[오답풀이] ② 형용사 '높다'는 접사 '-다랗다'와 결합해도 그 품사가 바뀌지 않는다. 동사 '맡다'는 접사 '-기-'와 결합해도 그 품사가 바뀌지 않는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이형태 관계의 예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30쪽

이형태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와 기능이 같아야 한다. 주격 조사 '씌셔(께서)'는 주격 조사 '이'와 달리, 대상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이는 이형태 관계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관형격 조사 '의'와 '이'는 모음 조화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났다. ②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즙-'과 '-숩-'은 어간의 끝소리에 따라 다른 형태로 실현됐다. ④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와 '-샤-'는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났다. 그 의미와 기능은 모두 동일하다.

[40 ~ 43] 매체 - 언어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18쪽

40.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카드 2'에 제시된 운동 부족 청소년 비율은 조사 시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그 정보가 최신의 것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41.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생산에 적용된 계획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카드 3'에 제시된 도표는 고등학생의 학생 건강 체력 평가 등급 비율이다. 초·중·고별 등급 비율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카드 1'에서 '청소년 여러분, 운동하고 계신가요?'라고 (가)가 다루고 있는 문제 상황의 대상인 청소년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의 문구를 제시하고 있다. ③'카드 3'에서 각 등급 옆에는 비율 변화 양상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다. ⑤'카드 4'에서 수영, 자전거 타기, 축구 등을 이미지로 제시하고, 생활 계획표 이미지와 '1시간 이상'이라는 문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전문가가 권고하는 운동의 종류와 시간을 알려 주고 있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언어적 특성에 대하여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대명사 '이'는 앞 문장의 '운동 상태 보고서'를 대신 가리키는 대용 표현으로 쓰여 기사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를 대신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생산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보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운동을 하자고 설득하는 캠페인에서 '카드 B'를 활용하여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제시할 수 있다.

[44 ~ 45] 매체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155쪽

44. [출제의도] 매체의 특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이다.

(가)는 휴대 전화 메신저이며 (나)는 인터넷 게시판의 글이다. (가)의 '정아'가 제공한 하이퍼링크는 '온라인 지원서 제출 페이지'로 연결되어 있어 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나)의 게시 글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③(가)의 3월 10일의 대화에서 '우찬'이는 체육관에 있고 '정아'와 '호연'이는 다른 공간에 있는 상태에서 서로 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나)의 게시 글의 정보 수용자 중 한 명인 '조인하'가 댓글을 통해 '포스터가 물에 젖어 찢어'졌다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제작 계획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해수'는 '요리 과정을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자고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나)의 홍보 포스터는 라봄이의 요리 과정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리 경험을 묻는 질문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